

“무관심 학생·어른이 학폭 방조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 박소연 감독

“모두의 무관심이 이렇게 무서운 학교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피라미드 게임’을 어른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마지막회가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은 백연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서로의 등급을 정하고 가장 낮은 F등급을 괴롭히는 내용이 다. 학생들은 이 잔인한 투표를 피라미드 게임이라 부른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소연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 ‘피라미드 게임’에서 투표를 기획하고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는 건 소수의 주도자이지만, 괴롭힘이 가능하게 하는 건 다른 학생들과 어른들의 방조와 방관이다.

2학년 5반 학생 25명 가운데 대다수는 투표에서 F등급이 될까 두려운 나머지 체제에 순응하고 집단따돌림에 동참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장난이라며 외면하고 묵인한다.

박 감독은 “게임이 탄생한 계기는 무의식과 무관심”이라며 “이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방지하는 어른들이야말로 무의식과 무관심으로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라미드 게임’은 신예 배우들을 주연으로 기용하고도 높은 성적을 거둬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티빙 주간 유료가입이슈지수 1위를 기록했고,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뷰(Viu)에서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2위에 올랐다.

큰 인기를 얻다 보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한 기획 의도와 달리 드라마를 모방한 학교폭력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공개 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안내장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했다. ‘피라미드 게임’은 청소년 관람 불가 시청 등급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작품이다.

박 감독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게임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려 했는데 이런 (부작용)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편치 않았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젊은 배우들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촬영하다 보니 제작진의 마음도 무거웠다고 한다.

박 감독은 특히 수지가 처음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모든 배우와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고 설명했다. 김지연(그룹 우주소녀 보아)이 자기 대역이 폭행당하는 연기를 보고 먼저 울기 시

작하고 마치 전염되듯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다 같이 박수치고 서로 응원하면서 그 장면 촬영을 마무리했어요. 그 장면을 찍으면서 현장의 모든 배우와 스태프가 하나가 된 것 같았죠.”

작품 전반부에 학생들은 주인공 성수지(김지연 분)의 주도로 결국 피라미드 게임을 없애고, 주도자들은 각자 벌을 받게 된다.

다만 마지막 장면에서 평화를 되찾은 학교에 두 쌍둥이가 전학을 오고 이들이 게임을 부활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시즌2에 대한 암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감독은 이를 두고 “사실 그 부분은 수미상관식 표현일 뿐 새로운 학교폭력이 시작된다는 암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쌍둥이를 향해 성수지가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성수지 자신이 처음 전학을 와서 자기소개는 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연출이라는 것.

박 감독은 “마지막 내레이션 속 성수지의 목소리가 피라미드 게임을 다시 시작하려는 두 쌍둥이를 차단하고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하려 했다”며 “성수지가 백연여고에 와서 피라미드 게임을 없앴듯이 쌍둥이가 새로 게임을 만들려고 해도 막아낼 것이라는 암시”라고 덧붙였다.

‘피라미드 게임’은 특히 신예 배우들의 활약을 두드러졌다. 성수지 역의 김지연은 과거에도 주연 경험이 있지만, 백하린 역의 장다아, 명자 역의 류다인, 서도아 역의 신슬기, 임예림 역의 강나연 등 비중 있는 배역 대부분을 신예로 채웠다.

장다아는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면서도 피라미드 게임을 설계한 흑마녀이자 과거의 아픔을 가진 백하린으로 변신해 호연을 펼쳤다. 장다아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언니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 감독은 “장원영 언니”라는 것을 알고 장다아 배우의 오디션을 봤는데, 사실 그런 배우의 배경은 오히려 제가 캐스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었다”며 “그런데 외모는 물론이고 손짓이나 발짓, 눈빛, 목소리 톤까지 모두 백하린 자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감독은 장다아가 이번 작품에서 대본이 새겨질 정도로 메모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렸다. 그는 “캐스팅 과정에서 냉정해지려고 항상 노력한다. 다른 건 안 보려고 했고, 이 배우가 배우고 얼마나 달았는지 본다면 ‘배우의 배경 때문에 캐스팅했는지 묻는 지인들도 있었는데, ‘네가 직접 보고 느껴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고 학생들 투표로 등급 결정 가장 낮은 F등급 학생 괴롭혀 잔인한 투표 통한 학폭 심각성 그려

티빙 주간 유료가입 지수 1위 기록 해외 OTT 뷰 인도네시아·싱가포르 2위



드라마의 한 장면.

유재석·유연석 ‘틈만 나면’ 예능 만남

SBS, 새 예능 다음달 첫 방송

방송인 유재석과 배우 유연석이 로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MC로 봉천다.

SBS는 새 예능 ‘틈만 나면’을 내달 23일 오후 10시 20분 처음 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

‘틈만 나면’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분하는 컨셉으로 기획된 예능이다. MC를 맡은 유재석과 유연석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SBS ‘런닝맨’, ‘수학 없는 수학여행’ 등을 연출한 최보필 PD와 넷플릭스 시리즈 ‘사이렌: 불의 섬’의 채진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유재석(왼쪽), 유연석

최 PD는 “자극이나 (인위적인) 설정은 덜어내고, 있는 그대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웃음을 드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손석구 ‘뱃글부대’ 기분좋은 출발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

손석구 주연의 ‘뱃글부대(사진)’가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28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뱃글부대’는 개봉일인 전날 12만 7000여명(매출액 점유율 36.7%)이 관람해 1위를 차지했다.

안국진 감독이 연출한 ‘뱃글부대’는 신문사 사회부 기자 상진(손석구 분)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뱃글부대의 실체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손석구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지만, 이야기의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분위기다. 실 관람객의 평가를 반영한 CGV 폴덴에 그 지수도 81.0%로 그리 높지 않다.

함께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고질라 X 콩: 뉴 엔파이어’는 5만 5000여명(18.2%)의 관객을 모아 3위에 올랐고, 티모테 샬라메 주연의 ‘둔: 파트 2’(1만 2000여명·5.1%)가 그 뒤를 이었다.

전날 개봉한 강승용 감독의 ‘1980’(6000여명·2.0%)과 허마구리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4000여명·1.2%)는 각각 6위와 8위로 출발했다. /연합뉴스

남진, 테크노×블루스 신곡 발표

가수 남진(사진)이 28일 신곡 ‘내맞이요’와 ‘목포항 블루스’를 발표했다

‘내맞이요’는 남진이 처음 선보이는 테크노 사운드의 곡으로, 남 탓만 하는 내로남불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목포항 블루스’는 목포가 고향인 남진이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아 부른 블루스 장르의 노래다. 목포시 문화재단의 요청으로 제작됐다.

두 신곡은 모두 안타프로덕션 대표인 작곡가 안



치행이 남진에게 선물한 곡이다. 1985년 남진에게 곡을 써주기로 한 약속을 39년 만에 지킨 것이라고 한다. 안치행은 조영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편곡했고, 나훈아의 ‘영동 블루스’를 작곡하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주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 당 화 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 쟁 이
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점 건너편 위치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일,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돔, 마사지 가능 의리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박 당 화 랑
광주동구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갈매리)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굵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정담배러미 소풍,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담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 명 명 리 심 리 연구 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 도 철 학 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택일 명리전문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 가 네 반 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 흥 치 마 한 정 식 전 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 곡 가 김 기 범 노래 교 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출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